

## BOX 2 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 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우리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IT경기 하강,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금년 2/4분기 이후 수출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10월과 11월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과거 회복기에 비해서는 증가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이를 물량과 단가로 구분해 보면, 수출물량은 자동차·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금년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가는 7월 이후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sup>66)</sup>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수출증가 속도는 과거 2000년 이후 여섯 차례의 회복기<sup>67)</sup>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금액은 9월부터 뚜렷한 회복

수출은 물량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수출단가는 완만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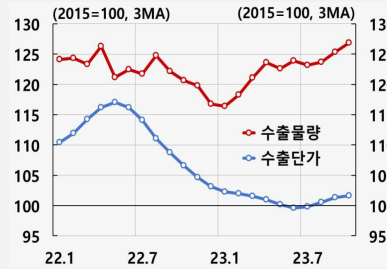
수출개선 모멘텀은 과거 회복기보다 약한 편

[그림 1] 총수출 및 일평균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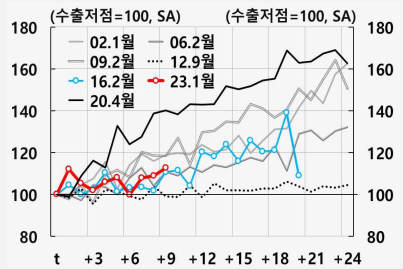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그림 2] 수출 물량<sup>1)</sup> 및 단가



주: 1) 선박제외 기준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그림 3] 과거 수출금액 회복기 비교<sup>1)</sup>



주: 1) 저점은 무역통계진흥원 및 조사국 추정 수출경기순환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조사국

품목별로 보면, 최근 수출은 자동차·기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가 개선세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AI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주요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감산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물량과 가격이 모두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베트남 등 IT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수출 개선세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트폰 등 IT최종재의 수출증가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모습<sup>68)</sup>이다. 비IT품목은 자동차<sup>69)</sup>·기계가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인프라투자 수요 지속 등으로 양호하지만 석유화학·철강 등 여타 품목들의 회복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對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對아세안5 수출도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對중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는 있으나 반도체 이외 수출액은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다<sup>70)</sup>.

66) 23.10월 현재 품목별 수출단가는 22년 평균대비 화공품 89%, 석유제품 90%, 철강 85%, 반도체 67% 등으로 낮은편이다. 다만, 반도체,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단가는 9월 이후 전기대비로 반등하는 모습이다.

67) 이번 수출 회복기는 글로벌 금융위기(09.2월)와 팬데믹(20.2월) 이후에 나타났던 회복기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서버관련 투자가 급증하였던 16.2월 이후의 회복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68)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억달러) : 23.1/4분기 71 → 2/4분기 77 → 3/4분기 88 → 10월 91 → 11월 97  
IT최종재(컴퓨터, 스마트폰) 월평균 수출액(억달러) : 23.1/4분기 19 → 2/4분기 18 → 3/4분기 20 → 10월 25 → 11월 25

69)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던 자동차 수출은 최근 들어 대기수요 해소 및 고금리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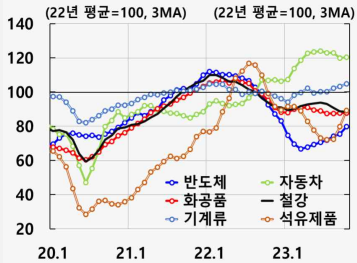
70) 반도체 제외 대중 월평균 수출액(억달러) : 23.1/4분기 71 → 2/4분기 72 → 3/4분기 73 → 10월 76 → 11월 78

반도체·기계 회복, 자동차 호조, 석유화학·철강 부진

세계교역은 둔화되는 가운데 IT수출 국가들의 수출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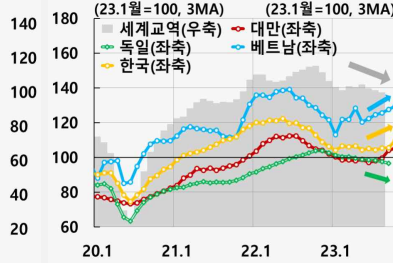
對미 수출 양호 對중·아세안5 수출 부진 완화

[그림 4] 품목별 통관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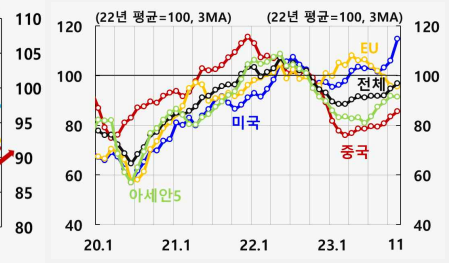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그림 5] 국가별 수출 추이



자료: CEIC

[그림 6] 수출대상국별 통관수출



자료: 관세청

##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향후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영향이 이어지겠으나 ①반도체경기 개선, ②신성장 산업 관련 주요국 투자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반도체경기 개선] 앞으로 우리 반도체 수출은 AI 관련 수요 증가로 고대역·고용량 제품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간 부진하였던 PC·스마트폰 등의 수요<sup>71)</sup>도 점차 살아나면서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회복기를 보면 우리 반도체 수출이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바 있다.

AI 관련 반도체시장은 꾸준히 확대

IT기기 생산은 꾸준히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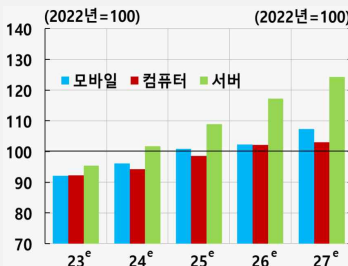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은 저점에서 평균 28개월 상승

[그림 7] AI 반도체 매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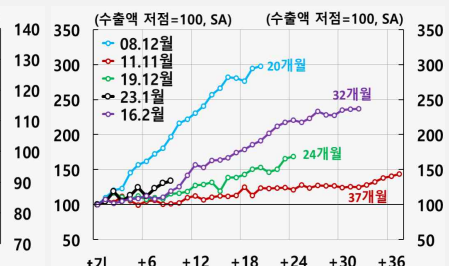
자료: Gartner

[그림 8] PC·서버·모바일 생산 전망



자료: Gartner

[그림 9] 우리 반도체수출 과거 회복패턴



주: 1) 저점은 반도체경기 하강기 내 최저 반도체 수출금액 기준으로 식별

자료: 관세청, 주요 증권사

71)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39개월~43개월 내외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교체주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CounterPoint, 2023)

**[② AI·친환경 등 신성장 투자확대]** 신성장산업 관련 미국·EU 등의 투자 확대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국과 EU는 반도체 등 핵심품목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 및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sup>72)</sup>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i기술 발전(반도체), 친환경 전환(전기차·배터리 등) 등을 위한 투자를 자국 내에 대규모로 확충함에 따라 우리 수출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아세안5는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도 반도체·화학품·석유제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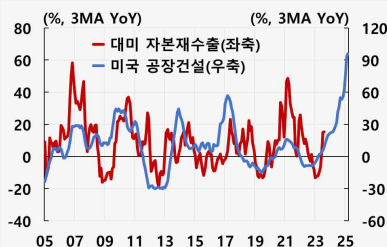
다만,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구재를 포함한 재화소비 회복이 더딘 점은 우리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지속할 경우 철강·기계 등을 중심으로 對중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공장건설과 대미 자본재수출간 높은 상관관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FDI와 중간재 수출은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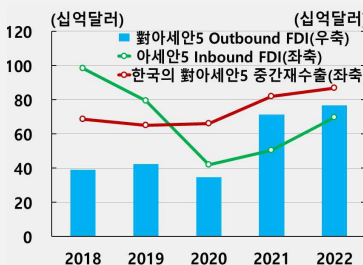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내구재 소비 제약요인**

**[그림 10] 미국 공장건설<sup>1)</sup>과 對미 자본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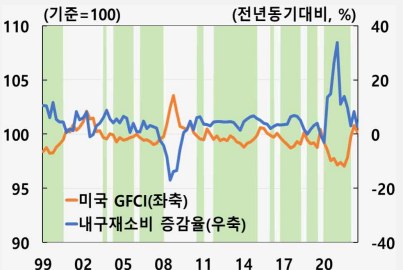
주: 1) 26개월 선형  
자료: 관세청, FRED

**[그림 11] 아세안5 FDI 및 對아세안5 중간재 수출**



자료: UNCTAD, 관세청

**[그림 12] 미국 금융환경지수<sup>1)</sup>와 내구재소비**



주: 1) 100 상회시 긴축적 금융환경  
2) 음영은 금융완화 시기  
자료: Goldman Sachs, BEA

한편 경기적인 요인 외에 GVC 재편과 같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도 우리 수출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고금리 지속으로 소비가 점차 둔화 되겠지만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향후 對미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자급률도 상승하고 있어 對중수출이 과거와 같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신흥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특히 아세안5와 인도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점차 대체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2) 미국은 IRA를 통해 북미지역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으며, EU는 CRMA(핵심원자재법)를 통해 특정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